

"2003년 용성스님 유훈사업 회향"

대각회 새이사장 도문스님



"대성 석가모니불의 대 각불교사상을 선포하고 또한 이를 민족 번영의 원리로 발전시킨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 재단법인 대각회 제 11대 이사장에 취임한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의 말이다.

대각회는 1969년 9월 11일 민족 독립과 전통불교의 수호를 위해 평생을 보낸 용성조사의 유훈을 계승하고자 설립,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스님은 대각회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용성스님의 유훈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용성조사의 탄생성지인 장수 변암 죽림사 죽림정사 건립과 생가복원 불사를 위시로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인 봉림산 봉림사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인 우면사 대성사지,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인 구미 아도 모례인, 신라고도 남산천 통사지 복원 등 국내 불사를 추진해왔다.

또 국외적으로는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국제사원 구역내에 최초의 한국사원 대성석가사를 건립중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대각사상연구원을 개설하고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정리 연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님은 "그동안의 모든 사업들이 용성조사유훈실현추진회(총회장 한수승행)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후원회와 함께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2003년까지 용성조사의 유훈을 받드는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각회는 9일 동국대에서 대각회 창립 30주년 기념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교차로

국제포교사 품수식



정권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18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한 다.



원영 정심사 주지는 8일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정심사 경내에 60평 규모 전통 건축양식의 대웅전을 봉행했다.

딸기어린이집 2돌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8일 구리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딸기어린이집 개원 2주년을 기념하여 박영순 구리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상덕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7일 관내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한민 90명을 대상으로 '실한노인 임진각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기금미려 '하루첫집'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수덕사 주지) 스님은 7일 조계사 앞 생터다방에서 생명나눔 기금미려를 위한 '하루첫집'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제씨 등 7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성낙송 불교방송 사장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수재의연금품 모금방송을 실시해 모두 8825만여원을 모아 8일 방송협회에 전달했다.

정각원 참선·요가 특강



성본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스님(불교학과 교수)은 11일부터 2개월간 정각원 법당에서 참선 및 요가수련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신영훈 한옥장인(匠人)은 13일부터 11월15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양재동 서초초형예술원에서 '한옥의 특성' '아파트를 한옥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한옥의 미학' '내집을 지을시다' 등을 주제로 10회에 걸쳐 강의한다.

제4회 고창문화상 수상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수필가)은 5일 수필 '동서화합'으로 제4회 고창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홍국 가수는 6일 열린 한국기아도움기구 회장에 임명됐다. 김홍국 가수는 6일 열린 한국기아도움기구(KBSO)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지진피해를 겪은 터키등지에 나섰다.

분당경찰서 경승실장제



우향 천은정 사 주지(성남시 불교사업연합회장)는 14일 오후 4시 지족스님 후임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승실장에 취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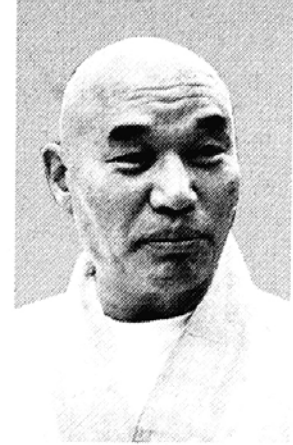
김정옥 시인은 10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 서울 수효사 수효문화원에서 '초급 명리'에 대해 강의한다. (02)313-5047

정심사 대웅전 기공식



정심사 대웅전 기공식

첫 졸업생 낸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 "인재불사 지속적 지원 필요"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중 단사업종 인재불사를 위한 거버넌스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은 종단의 어떤 불사보다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첫단추가 중요한만큼 제 1기때 교육행정이나 교수법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한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늘 따라다녔다"며 그간의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스님은 또 교육내용과 관련, 강

의훈려와 경전번역훈려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제헌뒤 강의훈려에 있어서는 일반적 주임식과 강의보조식, 학인을 스스로 강의나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자유방임식의 3가지를 모두 병행했다고 밝혔다. "능률적인 대학원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뛰어난 강사들을 배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전통사찰 51개 복원 주민들 추수후 불공"



북한의 현존사찰은 61개이며 그중에서 51개사찰이 복원된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본 황해도와 과거 경기도(개성)지역 주민들에게는 불교신앙이 남아있어 가을추수가 끝나면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월20일 모란봉 용화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 주최한 조국통일원 해외불교도 대법회에 참가한 도안스님(미주평불협 회장)은 해 외인사상 부인 이수자 보살등 윤이상 음악연구소 임원들과 함께 가진 고간 공양물을 올렸다. 황해도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본 스님은 개성 천마산 관음사에는 대웅전과 7층석탑이 원형보존돼 있고 바위굴에는 두 관음석상 2분이 안치됐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한탄만 남아있고 구월산 월정사

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과 수월당, 만세루가 큰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나 법당에 향로와 촛대, 목탁, 요령이 없어 스님일행은 육성으로 불공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도안스님은 "역사박물관에 경주 석굴암과 본존여래상, 석가탑, 다보탑의 축소모형을 화강암으로 깎아 실물처럼 전시했다"고 전하면서 "남북한이 전통문화복구를 통한 통일성 회복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jwkim@buddhania.com)

"정통 禪불교 세계에 알릴터"



첫 외국인 국제포교사 에드워드 뮤지카 "형식적인 불교가 아닌 내면의 진실을 담은 한국불교를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18일 오후4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국제포교사 품수식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포교사에 임명될 예정인 에드워드 뮤지카(Edward Muzika P.H.D. 57)씨는 "미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한국불교를 미국인의 특성에 맞는 수평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주불교협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부회장으로서 한국, 일본, 티베트, 몽골, 중국 불교와 두루 협력해 온 그가 한국불교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미주불교협의회 한국측 대표인 L.A. 관음사 주지 도안스님과의 인연 때문. 명리가 조실 승산스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한국인 물질 동경 기독교 귀의 많아"



테데스코 교수 주장 "내가 본 한국 불교·한국 불자"를 주제로 테데스코 교수(세종대의 강연회를 9일 개최했다. 테데스코 교수의 강연 요지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메릴랜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체류하는 불자라고 하면 대다수가 CNN에서 본 조계종 사태를 떠올리며 한국불교는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국불교를 사랑하지만 한국불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한다.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해야 한다.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로 불교에 귀의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물질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기독교에 귀의하고 있는 것 같다. 김지연 기자

"한국불교 사회운동 해외 소개"

'한국불교여행기' 자료수집 삼우스님 방한



왼쪽부터 개오, 삼우, 하주, 피랑 스님.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북미주에서 30여년간 주류사회를 상대로 한국 선불교를 보급해온 삼우스님(자해불교회 법주)이 외국인 제자 피랑·하주스님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 귀국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불교의 현대와 미래를 조명하는 <한국불교여행기>(가칭)를 집필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미시카고 미륵승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 입학자 모집 및 면접에 따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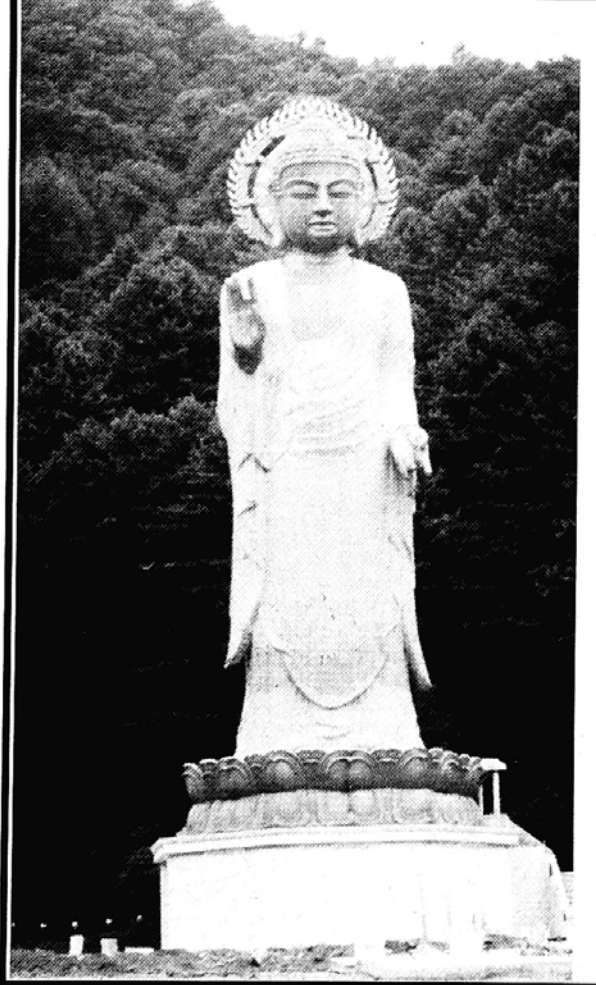
삼우스님이 기획하고 피랑스님이 집필하는 <한국불교여행기>에는 '지

금의 한국불교' '불교사회운동'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님 일행은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송광사, 실상사, 내원정사(부산)등 국내 주요 사찰을 방문하고 있다.

'참선수행' '불교예절 및 포교' '불교역사·문화' '불성 개발' '영어교육' 등의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미륵승가대학의 모집마감 및 면접은 10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합격자는 경북 안동시 흥은사에서 17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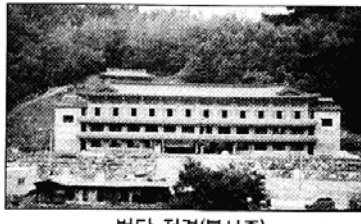
奉 동양식대 이미타 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 祝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합니다. (아미타 대불 높이 36M, 폭 10M 아파트 12층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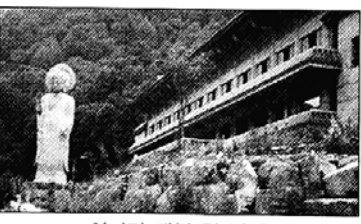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남과 북,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로세로 중앙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 연엽산은 신라말기 도선국사께서 우리나라 명당 약 400군데를 비로국찰로 정하셨고 풍수지리학의 원조이시며 홍천땅에 명당 기운이 솟아 이곳에 비로국찰을 세우실려고 하루밤 야숙을 하시는데 연화봉에 서광이 비치고 남여 화신이 내려와 이곳에 오셔서 "산이름을 지어 주시고 터 뒤음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셨다 합니다. 산이름은 연엽산이라 명하셨고 연화봉을 둘러싸인 99봉오리가 마치 연꽃이 피어 있듯이 합니다. 산에 기운이 너무 세 산에 기운이 누그러질 때 앞으로 약 천년후에 불사에 인연자가 타날 터이니 그때까지 터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선국사께서 절고 다니는 주장자로 약수물을 뚫고 절도 없는 곳에 연합, 절골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승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온선사를 창건 28년간 모아 놓은 부처님 정좌와 신도님들의 시주들로 우연히 강원도 홍천 연엽산 도선국사 불연지를 만나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시주 동참으로 불사시작한지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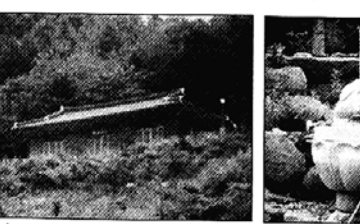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불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극락도 지옥도 해보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3층건물로 연건평 680평, 삼성각 30평, 아미타대불 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 10대 보은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에 부처님 12분을 탕화로 모셨고 각 12지 띠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미타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을 전국에 큰스님과 불자형제 사부대중을 모신 자리에서 점안 봉회를 봉행하고자 하니 풍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형제 여러분 이곳 연화사 아미타 대불 몸안에 있는 부모은중경을 전국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요즘 교육제도가 인재를 길러 내는데 치중하다 보니 사람 만드는 예절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자기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꽂혀있는 듯 합니다. 이곳 아미타 부처님 몸에 잉태하여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부모은중경을 청소년들을 위하여 부처님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대웅전과 요사채 식당 등등이 완성되지 못하여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당 전경(불사중)



아미타 대불 및 법당



법당뒤 삼성각



법당앞 약수

◎ 날짜 : 199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11시 <삼일간>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
◎ 위 지 : 홍천에 오셔서 강재공공원 성동마을 지나 연화사 ◎ 전 화 : 0366) 433-1815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연화사 주지 김 화 담